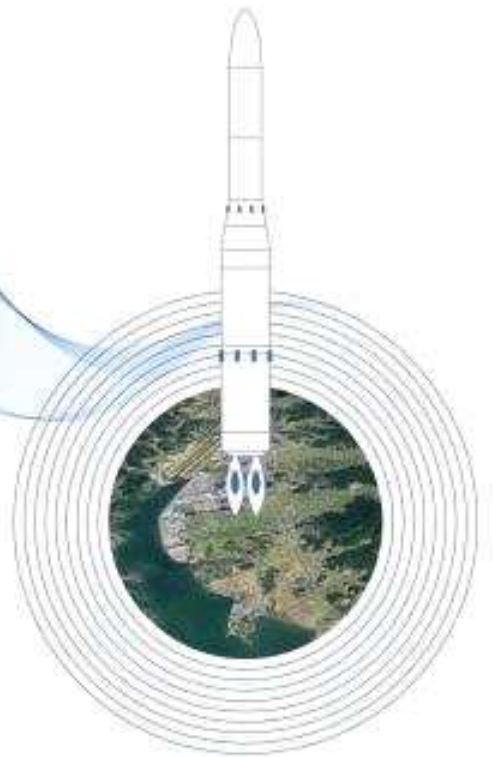


2024. 2월

우주항공산업 동향



우주항공과 미래도약
함께 합니다.



우주항공산업 동향

관 내 동향

사천시,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 추진단' 가동

- 사천시가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 구성을 끝내고 첫 회의를 가졌다.
- 추진단은 김성규 사천시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분야별 18개 부서가 참여한다.
- 회의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우주항공청 지원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37개 시책에 대한 법·행정적 검토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임시청사 지원, 이주종사자 이주 지원, 교통, 주거, 교육, 가족 지원, 기타 지원 등으로 분야를 정하고 분야별 시책을 점검해 최적의 지원 시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 추진단은 이날 각종 시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우선순위 설정, 예산편성과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개청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사천시에 3,000억 원 투자의향서 제출

- SK에코플랜트가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곤양면 대진리)에 3,0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 이는 그동안 대진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했던 해당 법인이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SK에코플랜트는 투자의향서 제출에 앞서 산단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 추진 의사를 적극 밝혀 왔다.
- 사천시는 투자 계획과 고용 및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 의향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수용할 경우 MOU 체결 후 관련 기관 협의, 산업단지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산단 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 사천시 관계자는 “기업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산단 계획 변경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도 내 동 향

우주항공청 성공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글로벌혁신연구포럼이 주최하고 경상남도, 과기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백년대계 우주항공청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 토론회에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기술개발과 우주항공산업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전국 우주항공기업 70%가 밀집된 경남 현실에 맞춘 우주항공청의 지역 밀착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목소리로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상무는 발제에서 우주항공청이 △산업화 촉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발사 수요 확보 △개발 관점에서 산업 관점으로 제도 개선 △발사체 경쟁력을 확보할 발사장 확대 등에 비전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도 발제에서 “2045년 우주경제 세계시장 규모 10%인 420조 원을 달성할 국내외 발사·위성 수요 창출 전략, 우주 부품 개발과 세계시장 진입, 우주 서비스 분야 민간기업 육성에 우주항공청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에 나선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도 “우주항공청과 산업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에 건립할 위성개발혁신센터에 연구원을 대거 파견해 산업화와 연계한 고민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방산기업, 사우디서 5000만달러 수출상담 성과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4~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WDS 2024’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해 5,0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올렸다.
- 경남도와 경남TP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창민테크론, 수옵틱스, 우리디에스, 우리에이치큐, 에스제이시스템, 네오헬스테크놀로지 등 7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 이들 기업은 방산 제품을 전시하고 현지 방산기업들과 미팅을 통해 중동지역 방산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 기회를 얻었다.
- 그 결과 52건, 5,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경남TP는 코트라와 협력해 사전 해외 바이어 화상회의 및 사우디 군, 방산기업들과 미팅을 지원했다.
-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경남TP 방위산업본부에 방산수출지원단을 신설하고, 경남지역의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의 글로벌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 미래전략산업 인력 양성 '교육발전특구' 신청

- 경남도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기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 교육부는 2월 9일까지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광역지자체와 여러 기초지자체가 함께하는 3유형으로 나눠 1차 신청을 받는다.
- 경남도는 3유형으로 우주항공 교육발전특구(진주시·사천시·고성군), 스마트제조 교육발전특구(창원시), 나노 교육발전특구(밀양시),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거제시), 자동차의생명 교육발전특구(김해시·양산시) 등 미래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1차 신청을 했다.
- 우주항공 교육발전특구는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이자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인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다.
- 경남항공고 등 지역 특성화고와 연계해 우주항공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경상국립대(글로벌대학)는 우주항공대학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한곳에 매년 특별교부금 30~1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허용한다.
- 경남도는 2차 공모에(6월 중) 의령군, 남해군, 산청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 내 동 향

국제항공 탄소법 국회 통과

- 항공사들이 연간 탄소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준수 차원에서 이뤄졌다.
-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는 제도로 현재 자발적 이행 단계지만 2027년부터 의무화된다.
- 이 법에 따르면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일 경우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를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된다.
-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 이들 항공사는 항공연료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 중이며, 대형 항공사들은 지속가능 항공유(SAF) 채택,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노후화된 항공기를 차세대 항공기로 변경해 연료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주 무기체계 인증시스템 도입으로 품질관리 기반 마련

- 방위사업청이 제15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4~2028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이 계획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한다.
- 이번 계획엔 5대 정책 방향과 14개 추진과제를 세웠는데 정책 방향에는 △무기체계 획득 전 단계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첨단무기체계 품질관리 기반 구축 △DNA(Data·Network·AI) 기반 과학적 품질관리 강화 △품질 영역 확대로 품질혁신을 견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품질경쟁력 확보 지원 등이 담겼다.
- 그리고 추진과제로 무기체계 획득 전 단계 품질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한 개발-양산단계 연계 강화 △양산단계 품질관리 효율화 및 업체 품질역량 제고 지원 △운영·유지단계 품질 및 운용성 지속 개선 △국외 구매품 품질관리 강화 등이 설정됐다.
- 첨단무기체계 품질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우주 무기체계 표준인증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무기체계 품질관리기법 발전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 구축지원 및 사이버능력 품질관리가 추진된다.
- 또 DNA 기반 과학적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부품 공급망 및 위조·단종 관리 강화 △AI 기반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 아울러 △군수품 신뢰성 분석 고도화 △무기체계 안전성 강화를 통해 품질영역 확대로 품질혁신을 견인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보 지원 △수출품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품질경쟁력 확보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방사청은 "이를 통해 첨단무기체계의 품질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수품 품질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면허 발급

-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신생 화물전용 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 시리우스항공은 2020년 4월 부산에서 설립된 항공사로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재무 능력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했으며,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 면허발급 후에도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안전운항증명(AOC)을 취득해야 하는데 시리우스항공은 올해 6월 운항을 개시하고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화물기 10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 외 동 향

일본,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든 위성 쏘아 올린다

- 일본이 우주쓰레기가 위험 요소로 떠오르자 우주 개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목재 위성을 개발하여 올해 여름 발사할 예정이다.
-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합작하여 세계 최초의 목재 위성의 막바지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프로젝트는 무라타 코지 교토대 농학연구과 교수 연구팀이 일본 최대 목재 회사 스미토모 임업과 손잡고 2020년 4월 시작했다.
- 이후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목련, 산벚나무, 자작나무 등 세 가지 나무를 대상으로 우주 노출 실험을 진행했다.
- 우주 방사선 노출 시험 등 극한 상황에서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가 실험의 최대 관건이었다.
- 최종 낙점된 나무는 목련으로 연구팀은 못과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가로·세로·높이가 10cm, 무게는 330g인 초소형 위성을 제작했다.
- 리그노셋으로 명명된 이 나무 위성이 성공하면 최초의 목재 인공위성이 탄생하게 되며 연구팀은 위성이 수명을 마친 뒤 자가 분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유럽우주국, 국제우주정거장에 금속 3D 프린터 최초 배치

- 유럽우주국(ES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금속 3D 프린터를 최초로 발사했다.
- 이번 금속 3D 프린터 발사는 시그너스 NG-20 재보급 임무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폴리머 기반 프린터였다.
- 180kg 무게의 이 금속 3D 프린터는 내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사용하여 작동하며, 일반 레이저 포인터보다 백만 배나 더 강력한 고출력 레이저가 와이어를 가열하여 금속 인쇄물을 만든다.
- 이 프린터는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SAS가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ESA의 인간 및 로봇 탐사국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되었다.
- ESA의 콜럼버스 모듈에 있는 유러피언 드로우랙 마크 II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우주 기반 구조물 제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성일	2024. 2. 13.(화)	보고일	2024. 2. 14.(수)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김난주(055-831-3473)